

# 빨라진 수도권 김장…“전남 배추 출하 앞당겨라”

전국 최대 생산·남도김치 명성에도 김장시장 점유율 7% 불과도, 수확 앞당길 품종 개발 나서…김치 산업 고도화도 과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장용 배추를 생산하는 전남이 수도권 중심의 빨라진 김장 시기에 맞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남의 가을 배추가 수도권 김장시기를 넘어선 후에야 출하되기 때문인데, 이와 함께 김치류 제조업체 수대비 낮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의 김치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김장 시기가 기후 등을 고려한 적정시기보다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장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김치냉장고 등 가전기의 발달로 김장 시기가 중요해지지 않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은 김장에 주로 쓰이는 가을 배추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빨라진 김장 시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3023㏊로 전국 면적(1만3076㏊)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가을배추 생산량 역시 32만4000t으로 전국 생산량(22만4000t)의 2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가을배추 출하시기는 10월 말에서 12월 사이로, 특히 11월 중순 분격 출하가 이뤄진다. 그러나 기상청이 발표한 김장 적정시기를 살펴보면, 11월 중순 경까지 전국 김장가구의 43%가 김장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정 김장시기보다 일찍 김치를 담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보다 더 많은 가구가 김장을 마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가을배추의 본격적인 출하시기에 이미 김장을 마친 가구가 절반에 달하면서, 전남 가을배추 출하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출하 시기가 9~10월 말경인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앞당겨진 김장시기로 인해 수도권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 같은 점을 감안, 빨라진 수도권 김장 시기에 맞춰 농업기술원 등과 출하가 가능한 품종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은 단순히 김장에 들어가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제적인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전남도내 사회봉사단체가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왼쪽) 해남 배추밭 전경.



실정이다.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전남도내 김치류 제조업체 수는 325개(16.4%)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에 이어 경기(324개), 광주(169개) 순으로 많았지만 지난 2024년 기준, 김치류 판매액 비중은 경기 23.2%로 가장 높았고 충북(17.6%)과 강원(16.7%)이 뒤를 이은 반면, 전남은 7.0%로 4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남도김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상 수상 3회를 기록했지만, 전남의 김치 산업은 이 같은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김치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건 영세 가공업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시장 경쟁력과 수출 확장성이 낮다는 게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윤영석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 단계에서 제품 기획과 브랜드, 유통, 수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장 주도형·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김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푸드테크 인프라 구축과 기술 지원과 남도김치가 가진 각각적·문화적 정체성을 상업적 브랜드로 구체화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을 배추의 생산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품종 개발과 함께 1년 내내 맛있는 전남 배추를 시장에 내보일 수 있는 방안이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매달 27일은 ‘닭고기 먹는 날’

농협, 닭고기 소비 촉진 나서

농협전남본부가 닭고기 소비 촉진에 나섰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닭 데이미케팅이 지속 가능한 소비촉진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농협은 올해 농협 차원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동심협력’(同心協力) 사업에서 착안한 ‘동심 달닭’ 마케팅으로 이름붙였다.

‘마음을 합쳐 매월 닭고기를’이라는 식으로 상생의 방향에 맞춰 축산물과 농산물을 함께 연계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미라는 게 농협전남본부 설명이다.

농협전남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산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농협 자회사(목우촌)가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이 참여한 시식 행사도 개최했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닭 데이미케팅이 지속 가능한 소비촉진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 작은 섬 뱃길 올해도 열린다…주민 이동권 향상

도, 10곳에 202억 투입 운임 지원…생활물류 앱 구축으로 불편 해소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전남지역 10개 소외도서(8개 항로)에 대한 뱃길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모두 202억원을 투입,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과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소외도서 뱃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부 사업비로 운영되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경우 7개 시·군에 12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전남도가 자체 사업비 43억 26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섬 주민 1000원 여객

선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경우 신안(20억 8000만원), 여수(10억 7000만원), 완도·진도 등 8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이외 일반인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10억)도 4개 시·군(여수·고흥·완도·신안)에서 추진된다.

특히 과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10개 소외도서(8개 항로)에 대한 뱃길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안정적 섬 주민 이동권 확보에 나선다.

지역별로는 여수(2개 항로) 3개 섬(대운두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고흥(1개 항로) 1개 섬(수락도), 완도(2개 항로) 3개 섬(초완도, 넙도, 다

랑도), 신안(3개 항로) 3개 섬(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등에서 어선을 임차, 항로당 9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섬 주민들을 실어나르게 된다.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생활연료 ▲생활필품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APP)’을 신규로 구축,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등을 신청할 때마다 겪었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절차를 해결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업들을 계기로 섬 복지 모델을 공고히 마련,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 주민이 일상에서 겪은 지리적 불편함 해소에 적극 나서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 임산부·영유아·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

도, 2월 13일까지

임산부와 난임부부,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1인당 연 48만원 상당(자부단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오는 2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인산부, 난임부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는 전남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자격 검증을 거쳐 3000명에게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영유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가정(가정보육)을 대상으로 1500명을 지원한다. 선정되면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의 ‘친환경 농산물 전용판’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을 월 4회 이내(연 16회),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해 배송 받을 수 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생  
生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生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312쪽 | 값 16,000원

누가 호박꽃도 꽂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점,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점), 목포(연산서점)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의산(동아서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